

석유 비축능력 2070만배럴 확장

4개 비축시설 완공으로 ... 정부 비축설비 총 1억1619만배럴

국내 최대규모의 지상탱크 석유비축기지인 서산 석유비축기지가 완공됐다.

정부는 8월18일 충남 서산비축기지 건설현장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이회범 산업자원부장관, 심대평 충남도지사,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 거제, 여수, 동해 석유비축기지 종합 준공식을 가졌다.

4개 기지는 제3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1997년부터 건설이 추진된 것으로 동해기지(110만배럴)는 2000년, 여수기지(250만배럴)는 2002년 완공됐으며 거제기지(250만배럴)와 서산기지(1460만배럴)는 8월 완공돼 함께 준공식이 열렸다.

4개 기지는 모두 지상탱크 비축기지로 총 비축규모가 2070만배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비축 시설규모는 1억1619억배럴로 1억배럴을 돌파해 석유수급 차질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게 됐다.

특히, 서산기지는 국내 최대규모의 지상탱크 비축기지로 총 24기의 탱크에 원유 1100만배럴, 휘발유 60만배럴, 등유 120만배럴, 경유 180만배럴 등 국내 수입량 기준으로 11일분인 146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다.

서산기지는 1997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27만5000평에 착공해 2595억원을 투입해 건설됐다.

정부는 3차 비축계획에 따라 2007년까지 비축 시설규모를 총 1억4600만배럴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축기지 완공으로 한국은 동북아 석유물류 중심 기지로서 입지가 강화돼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사업 등 석유 물류 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국제공동비축사업을 통해 석유위기 시 비축유 우선구매 조건으로 비축시설의 일부를 산유국에 임대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한편 간접 비축사업을 펴고 있다.

산유국들은 인접국인 중국 등에 석유를 신속 판매하기 위해 한국 비축기지를 임대해 중간 저장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석유비축사업은 평소 석유를 비축한 후 석유공급 차질 등 석유위기 때 비축유를 공급함으로써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1974년, 1980년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석유 공급차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80년 이후 석유비축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석유 순수입량 기준으로 110일분(정부 55일에 민간 55 일)이며 미국은 118일분, 일본은 136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8/19>